

언론정보연구
50권 1호, 2013년, 193~229
<http://icr.snu.ac.kr/jcr>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무엇이 되는 삶’과 ‘어떻게 사는 삶’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손지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wisdom1028@empas.com

박승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park@snu.ac.kr

이 연구는 ‘사회 지향과 ‘개념 지향’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성공 지향(경쟁에서의 승리와 출세 강조)과 ‘성숙 지향(인성의 함양 추구)을 개념화하였다. 또 이들 두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한 네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참사람형, 큰사람형, 홀사람형)과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사람형(성공 지향 低, 성숙 지향 高) 가족의 아동이 나머지 세 가족 유형의 아동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 구성 분별성의 경우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과 여타 가족 유형의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EYWORDS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 성공 지향 • 성숙 지향 • 의사소통 능력 • 대인관계 만족도 • 대인 구성 분별성

* 이 논문은 손지혜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기금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1. 문제의 제기

“1,000명의 아이를 모두 서울대 학생으로 만들려는 교육이 옳은 겁니까?
‘난사람’이 아니라 ‘된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너무 오래 잊은
것 아닙니까?”

소설가 최인호 씨가 유교 소설 완간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김지영, 2007). 한국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두고 옳지 못한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가 통하는 우리 사회는 병리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경쟁 지향적이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면 가장 행복할지 물었을 때에도 ‘좋은 학업성적’(40.3%)과 ‘돈이 많아야 한다’(24.6%)라는 응답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아이들은 성적이 좋아야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가치관을 보여 주었다(문용린, 2011, 37쪽).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며, 수능 시험을 망친 수험생들은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경쟁은 “학생만의 경쟁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의 사회적 경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강창동, 2007, 27쪽). 김경신 등(1994)은 부모들이 사회 전반의 교육열은 과잉 상태라고 지각하면서도 자신의 교육열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자기 자녀만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합리화하는 가족이기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174쪽).

교육에서의 가족주의는 한국 사회에 널리 확산된 특이 현상이다. 하지만 자녀의 인성을 함양하는 것도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가족도 존재한다. 가족의 지향점이 구성원들의 ‘성공’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인가 하는 것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양상뿐 아니라 삶에 대한 자녀의 태도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정치사회화 연구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채피와 맥클라우드, 와크만(Chaffee, McLead, & Wackman, 1973)이 개념화하여 리치와 피츠패트릭(Ritchie & Fitzpatrick, 1990)이 수정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① 논쟁을 회피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사회 지향(순응 지향)과 ②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견 표현을 강조하는 개념 지향(대화 지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두 차원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채피 등(1973)에 의해 개념화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국내 연구들은 아직까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은 암묵적으로 한국 가족과 서구 가족의 맥락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구에서 개발된 개념들이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 틀이 국내에서도 유용함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기존의 틀만을 고수하느라 간과했던 부분은 없는지, 국내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별도의 모형을 만들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입시 경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지향, 그리고 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가족의 모습을 고려해 새로운 차원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① 경쟁에서의 승리, 출세 등을 강조하는 성공 지향 차원과 ② 인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성숙 지향 차원으로 재배열하였다. 또한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명시적, 암묵적인 규칙은 우리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Lane, 2010), 성공 지향 차원과 성숙 지향 차원의 교차에 따라 구분되는 네 가지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각각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즉, ① 커뮤니케이션의 인지적 자원으로서 대인 구성 분별성, ② 실제 실행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 ③ 심리적 요소로서 대인관계 만족도)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채피 등(1973)의

연구를 토대로 하되 가족주의 교육 경쟁이라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하는 새로운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념화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실제로 유용한 분석틀로 한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재개념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어떤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자녀의 사회인지적 발달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아동 양육을 위한 실용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사회화란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가 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Zigler & Child, 1969, p. 450), 문화적 지식, 자원, 관습을 개인이 내면화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함한다(Burleson, Delia, & Applegate, 1995). 학교, 미디어 등 여러 가지 사회화 기구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가족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기 시작하며,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상과 현실을 알아가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인간의 일생에서 아동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의 기초를 쌓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기다.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에 접어든 자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발달 과업을 해결하면서 더 큰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아동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처음으로 받게 되면서 사회와 독립적인 접촉을 시작하며, 점차 확장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가족은 외부 세계에 대

한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가족 구성원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Galvin & Brommel, 1986/1995).

김지영·이형실(2010)의 연구에서 가족 및 또래 요인 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신효식·김근화(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게 된다(Isley, O'Neil, Clatfelter, & Parke, 1999). 이처럼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련의 공유된 의미질서를 형성, 습득해 나간다(Galvin & Brommel, 1986/1995). 그런데 특히 아동의 경우, 가족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성격 및 행동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가정 밖에서의 또래 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예, Isley, et al., 1999),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1) 선행 연구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CP)은 가족 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뜻하는 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지칭하며, 부모가 강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채피 등(1973)은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사회 지향(socio-orientation)과 개념

지향(concept-orientation)으로 구분했다. 이 중 사회 지향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여 부모가 아이에게 가급적 논쟁을 피하고 화를 참으라고 권고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개념 지향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중시하여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어른과의 논쟁적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연구 결과, 개념 지향이 높고 사회 지향이 낮은 다원형(pluralistic) 가족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최적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Chaffee, et al., 1973). 이후 리치와 피츠패트릭(Ritchie & Fitzpatrick, 1990)은 채피 등(1973)이 분류한 사회 지향 및 개념 지향을 각각 순응 지향(conformity-orientation) 및 대화 지향(conversation-orientation)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수정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the 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RFCP)을 개발하였다.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 지향에는 부모의 권력 및 지배가,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강조하는 개념 지향에는 대화 및 개방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채피 등(1973)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두 차원을 각각 별도의 독립된 차원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직각 교차시켜,¹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다원형, 보호형, 합의형, 방임형) 가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념 지향(대화 지향)만을 강조하는 다원형(pluralistic) 가족의 경우, 아이는 부모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관계가 어그러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반대로 사회 지향(순응 지향)만을 강조하는 보호형(protective) 가족은 아이가 논쟁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고 부모의 뜻에 따르도록 권위를 행사한다.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강조하는 합의형(consensual) 가족의 경우, 아이는 논쟁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회 관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표현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끝으로 두 차원 중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는 방임형(laissez-faire) 가

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 지향(순응 지향)과 개념 지향(대화 지향)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기도 하였다(예, 한주리·히경호, 2005; Koesten & Anderson, 2004).

개념 지향(대화 지향) 커뮤니케이션

		낮음	높음
사회 지향 (순응 지향) 커뮤니케이션	낮음	방임형	다원형
	높음	보호형	합의형

출처: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by S. Chaffee, J. McLeod, & D. Wackman, 1973, In J. Dennis (Ed.), *Socialization to politics: A reader*, p.351, NY:Wiley (원문의 그림에 괄호로 Ritchie & Fitzpatrick (1990)의 개념을 추가하여 연구자가 수정함).

그림 1. 선행 연구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따른 가족 유형

족은 아이가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독자적인 생각을 표현하게끔 장려하지도 않는다(Chaffee, et al., 1973; Ritchie & Fitzpatrick, 1990).

이러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및 가족 유형은 청소년의 정치사회화(Chaffee, et al., 1973)뿐 아니라 TV 이용(Lull, 1980), 성격 특성(Huang, 1999), 가족의 대화 패턴 및 관점 수용(perspective-taking)(Koerner & Cvancara, 2002)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만제, 2009)이나 외모에 대한 인식(조윤경, 2010), 자녀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한주리·허정호, 2005), 미디어 폭력에 대한 어린이의 도덕 추론 및 공격성(최이정, 2005)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선행 연구(Chaffee, et al., 1973; Ritchie & Fitzpatrick, 1990)에서 규정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미디어 이용, 성격 특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변인을 예측하는 데 유용성을 제공하여 왔다.

한편 이후의 관련 연구 대다수는 기존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자체에 대한 진지한 개념적 재검토나 새로운 이론적 진전의 모색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 지향(순응 지향)과 개념 지향(대화 지향)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두 차원으로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사회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대표적인 차원이나 축은 어떠한 것인지를 재조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성공 지향, 성숙 지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지향(순응 지향), 개념 지향(대화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차원 또는 유형이 기존 문헌에서 유용한 개념들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운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개방성과 통제의 차원이 아닌 별도의 차원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채피 등(1973)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개념화와 그에 대한 리치와 피츠패트릭(Ritchie & Fitzpatrick, 1990)의 발전적 전개가 얻어낸 의미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존의 개념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눈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만, 가족 간 대화는 사실상 몇 안 되는 주제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Stone & Chaffee, 1970). 채피 등(1973)은 그 중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자녀 간의 구조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규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한 사회 내의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보다 훨씬 빈번하게 말하는 특정한 주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거나 그 속에 숨겨진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되는 삶의 방식, 생활 규범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커뮤니케이션 규범 그 자체와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중요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광의로 해석하여, 가족 안에서 삶의 가치 지향이 강조·교류·학습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채피 등(1973)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개념과 다소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개념을 정립을 위해 기존의 개념을 확장한 것임을 밝힌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구성하는 핵심적 차원 또는 축은 과연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 생각이 옳으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거나(사회 지향 또는 순응 지향),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개념 지향 또는 대화 지향)보다 실제 한국 가족 내에서 더 많이, 더욱 자주 교환되는 대화와 그 안에서 추구되고 아동에게 내면화되는 가치는 어떠한 것들일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김현철 외, 2007a)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공부해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면접 조사를 기초로 한 5개국(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비교 연구(김현철 외, 2007b)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간섭하고 자녀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심했는데, 이러한 경향의 본질은 자녀의 성적과 관련 있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학업 불충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의 심화된 교육 경쟁의 현실 속에서 많은 부모들은 경쟁 논리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자녀가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며,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경쟁 논리 하나만의 사회화 기관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인성 함양에 더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가족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의 두 차원으로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먼저 성공 지향은 경쟁에서의 승리, 출세, 지위 획득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성공 지향은 자녀의 성적 향상과 입시의 성공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성숙 지향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즉 인격의 강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이 타인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중시한다면,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한다. 전자가 어떤 일의 결과를 중시한다면, 후자는 과정을 더욱 고려한다. 전자가 1등, 승자, 특정 직업 등 ‘무엇이 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후자는 올바르게 사는 삶, 봉사하는 삶과 같이 ‘어떻게 사는 삶’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각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네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참사람형, 큰사람형, 흠사람형)이 도출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난사람이란 “남보다 두드러지게 잘난 사람”을 말하며, 참사람이란 “마음이나 행동이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을 뜻한다.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 차원 각각을 잘 대변하는 용어이므로, 두 차원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중 한 차원만 높은 경우에 대해 해당 이름을 붙였다. 큰사람은 “됨됨이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또는 큰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엄밀하게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연결되어야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이 모두 높은 경우를 뜻하겠지만,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적당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

		낮음	높음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	낮음	흠사람형	난사람형
	높음	참사람형	큰사람형

그림 2.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따른 가족 유형

한 용어가 없어, 양 측면 중 하나를 의미하지만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큰 사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홀사람은 홀벌사람의 준말로, “속이 깊지 못하고 소견이 얇은 사람”을 뜻한다.

성공 지향 차원이 높고 성숙 지향 차원이 낮은 난사람형 가족은 높은 수준의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반면, 도덕적인 가치나 예절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다. 한편 성숙 지향이 높고 성공 지향이 낮은 참사람형 가족은 인성의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며, 경쟁에서의 승리 및 높은 지위의 획득은 비교적 덜 중시한다.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 차원이 모두 높은 큰사람형 가족은 자녀가 타인보다 뛰어난 능력과 성공을 보일 뿐 아니라 올바른 품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 차원이 모두 낮은 홀사람형 가족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자녀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크게 애쓰지도 않는다.

한 국제비교 연구(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2010)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36개국 중 35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준·이영민(2010)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간관계보다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꼽은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가족 안에서 증폭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이 각각 ‘학업’ 및 ‘인간관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자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가족 유형 중 어떤 유형이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아동기의 교우 관계와 또래로부터의 거부 경험이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 연구 결과(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는 아동기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가족 환경이라고 보고, 위에서 개념화한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행해지고 모든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단위가 되는 커뮤니케이션”(김현주, 1992, 129쪽)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중 ① 인지적 차원인 대인 구성 분별성, ② 실천적 차원인 의사소통 능력, ③ 심리적 차원인 대인관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1) 대인 구성 분별성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 핵심 개념이 대인 구성 분별성(interpersonal construct differentiation)²이다. 여기에서 대인 구성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현실을 담아내는 인지적 틀을 말하며, 분별성은 대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독립적인 구성의 수로 정의된다. 대인 구성 분별성이라 함은 “사람들 간의 성격과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Griffin, 2009, p. 98).

대인 구성 분별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 구조가 덜 발달된 사람들에 비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클

² 대인 구성 분별성은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구성주의 관점의 연구에서는 주로 ‘인지적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해당 용어에 대해 대인 구성 체계(interpersonal construct system)의 분별성(differentiation) 정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Clark & Delia, 1977; Crockett, 1965).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대인 구성 분별성’이라 명명하는 것이 개념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대인 구성 분별성에 대한 리뷰 논문에서 ‘인지적 복잡성’과 ‘구성 분별성(constructs differentiation)’을 동의어로 간주하기도 하였다(O’Keefe & Sypher, 1981).

락과 델리아(Clark & Delia, 1977)는 대인 구성 분별성이 높은 아이들이 청자에게 알맞은(listener-adapted)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개 능력이 뛰어난을 밝혔다. 애플게이트(Applegate, 1982) 역시 설득 상황에서 이용되는 전략의 수와 그 전략이 청자에게 적합한 정도가 대인 구성 분별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무엇보다도 대인 구성 분별성이 높은 사람은 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정교한 목표와 메시지 계획을 세움으로써 특정 상대방과 맥락에 맞는 메시지(person-centered message)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Griffin, 2009). 따라서 대인 구성 분별성은 커뮤니케이션 자원으로 기능하는 인지적 속성 또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대인 구성 분별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대인관계가 여성의 삶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rockett, 1965). 따라서 가족 유형에 따라 아동의 대인 구성 분별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때, 아동의 성별을 통제할 필요가 발생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성숙 지향이 높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대인 구성 분별성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숙 지향이 낮은 환경보다 높은 환경에서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숙 지향 가족의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적 원리와 행동을 설명하면서 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같은 상황이 타인의 입장에서는 달리 보일 수 있음을 자녀가 깨닫도록 유도할 수 있다. 관점 수용 능력이 대인 구성 분별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Clark & Delia, 1977; Hale & Delia, 1976)는 성숙 지향이 높은 가족의 아동이 대인 구성 분별성도 높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즉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Griffin, 2009, p. 99). 전자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흑백논리로 결정하는,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며, 후자는 다양한 범주를 활용해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인지적으로 정교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공 지향 가족이 강조하는 경쟁은 ‘이것 아니면 저것’,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과 같은 양자 택일적인 사고방식을 초래하므로(Kohn, 1992/1995), 아동의 인지적 정교화를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성숙 지향이 높고 성공 지향이 낮은 참사람형 가족 유형이 자녀의 대인 구성 분별성 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은 다른 세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큰사람형, 홑사람형)의 아동보다 높은 대인 구성 분별성을 보일 것이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에 대한 정의는 그 구성 개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수만큼 많다”(Jablin & Sias, 2001, p. 820)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가령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상대방의 목표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Lakey & Canary, 2002; Wiemann, 1977),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통제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Spitzberg, 1983),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Rubin, Martin, Bruning, & Powers, 1993) 등으로 개념화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상호 대립되는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① 지식의 차원으로 보는 ‘인지적’ 관점과 실행의 차원으로 보는 ‘행동적’ 관점의 대립, ②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성향’으로 보는 관점과 상황에 의해 영향 받는 ‘상태’로 보는 관점 사이의 대립, ③ 언어 지식의 측면에서 보는 ‘언어적’ 관점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보는 ‘대인적’ 관점 및 소통 목적의 달성을 중시하는 ‘관계적’ 관점의 대립을 내

포하고 있다(장해순, 2003; 최민아·신우열·박민아·김주환, 2009). 이와 같은 여러 관점들 중 어떤 입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장해순, 2003).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인지적, 실천적, 심리적 차원의 변인을 설정하면서 실천적 차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행동적 관점을, 가족 환경에 따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상태 관점을, 그리고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는 점에서 대인적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 구성 분별성에 의해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으나, 대인 구성 분별성은 주로 설득 메시지의 생산 같은 특정 맥락에서 논의된 인지적 개념이라는 점에서(예, Applegate, 1983; Clark & Delia, 1977) 의사소통 능력을 별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도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듯이(이준용 외, 2007), 의사소통 능력은 생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학습 가능한 것이다. 학교 수업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지식과 기술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그러면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을까?

성공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하는 경쟁에서의 승리와 달리,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하는 인격 및 도덕은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 규범이다. 성숙 지향 가족의 아동은 대인관계의 맥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규율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아동의 관점 수용 능력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숙 지향이 높은 가족의 아동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쉬우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할 뿐 아니라 상황

에 맞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반면 성공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이와 같은 측면들에서 아동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될수록 아동은 경쟁에서 이길 것을 요구 받게 되는데, 경쟁 상황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Qin, Johnson, & Johnson, 1995). 이에 따라 성공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아동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이익을 함께 증진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거나 상황과 대상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 발달의 기회 역시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 지향이 낮고 성숙 지향이 높은 참사람형이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가장 적합한 가족 유형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 연구가설 2: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은 다른 세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큰사람형, 홀사람형)의 아동보다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보일 것이다.

(3) 대인관계 만족도

인간은 일생 동안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인간에게는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들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일상적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만 윤택해질 수 있다. 대인관계 만족도(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라 함은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은혜기, 2000). 아동기에 중요한 타인으로는 부모, 친구, 교사를 들 수 있다. 만약 아동이 이들과의 대인관계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이들이 아동에게 이야기 상대나 도움을 청할 대상이 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은혁기, 2000).

대인관계는 상대방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발달하고 유지되며, 인간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유사성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Gleitman, 1995/1999, 622쪽). 그런데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은 가족의 아동에게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이 활성화되기 쉽다. 경쟁은 사회 비교 상황에서 대조(contrast)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Stapel & Koomen, 2005). 스테이플과 쿠멘(Stapel & Koomen, 2005)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두 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물었을 때조차도, 경쟁적인 사람이 협동적인 사람보다 그림의 유사성을 낮게 판단하며, 마찬가지로 경쟁적 맥락에서 협동적 맥락일 때보다 유사성을 낮게 판단함을 발견했다. 따라서 성공 지향 가족의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 같은 성인과의 관계에서도 성공 지향이 지배적인 가족의 아동은 자신이 학업 성취를 포함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에만 어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느낄 때에는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다(문용린, 2011, 224~225쪽).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이 높은 가족의 아동은 그것이 낮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 그를 친근한 존재로 받아들일 것이며, 이에 따라 아동 스스로 느끼는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성숙된 행동을 요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또래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누린다는 연구 결과(최석란, 2001)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성공 지향이 낮고 성숙 지향이 높은 참사람형 가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3: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은 다른 세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큰사람형, 홀사람형)의 아동보다 높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보일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는데, 저학년 학생들이 응답하기에는 전체적인 설문 문항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대인 구성 분별성 측정을 위한 개방형 질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청주 지역 각 1개 초등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해당 학교의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1월 초에 수업 시간을 통해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설문지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성공 지향, 성숙 지향) 측정 문항, 대인 구성 분별성 측정을 위한 역할 범주 설문(Role Category Questionnaire: RCQ),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만족도 측정 문항,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속성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총 39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하고, 38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중 남자가 211명(54.2%), 여자가 176명(45.2%), 무응답 2명(0.5%)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207명(53.2%), 청주 182명(46.8%)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가설 검증을 위해 인구학적 변인을 공변인으로 통제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가설에 부합되는 대비 분석(contras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측정 문항

성공 지향
1)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항상 남보다 앞서 나가길 바라신다.
2) 우리 부모님은 나의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의 성적과 내 성적을 비교하시곤 한다.
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4)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공부나 성적, 대학에 관한 이야기다.
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시는 편이다.
성숙 지향
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떠한 가치(정직, 책임감 등)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2) 우리 부모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매우 강조하신다.
3) 우리 부모님은 이웃과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편이다.
4) 우리 부모님은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2) 변인의 측정 및 지수화

(1)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표 1>과 같이 측정 척도를 구성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중 성공 지향 측정 문항은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므로 주로 학업과 관련 지어 구성하였으며, 성숙 지향 측정 문항에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으로 인한 응답의 편중을 줄이기 위해 ‘자주’, ‘매우’와 같은 부사를 첨가하였다.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로 측정된 신뢰도는 성공 지향 .76($M= 3.05, SD= .86$), 성숙 지향 .79($M= 3.31, SD= .83$)로 나타났다.

직교회전방식(varimax)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 구조에 맞게 2개의 요인(성공 지향, 성숙 지향)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와 공통성(communality)도 모든 문항에서 0.40 이상이었다. 고유값(eigen value)은 성공 지향 2.50, 성숙 지향 2.64였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57.14%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얻어진 요인점수를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지수로 삼았다.³

(2) 대인 구성 분별성

크로켓(Crockett, 1965)의 역할 범주 설문을 이용해 대인 구성 분별성을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타인의 인상을 형성할 때 개인이 이용하는 구성(constructs)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역할 범주 설문은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높았고(Burleson & Waltman, 1988; O'Keefe & Sypher, 1981), 적절한 대인 구성 분별성 측정 도구로서 기타 여러 가지 기준(지능 및 언어 능력과의 독립성, 다른 사회 인지적 지표들과의 연관성 등)을 만족시켰다(O'Keefe & Sypher, 1981).

먼저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잘 아는, 같은 나이의 친구들 중 좋아하는 친구 한 명과 싫어하는 친구 한 명을 떠올리고, 그 두 명의 친구들에 대해 잠시 동안 마음속으로 비교하며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각 학급 내의 모든 응답자들이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렸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동시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였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5분 동안 자유롭게 묘사하게 하였다. “그 친구를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가 그 친구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한다고 상상하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특징, 성격, 버릇, 행동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아래 칸 안에 설명해 주세요”라고 지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는 싫어하는 친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5분 동안 묘사하게 하였다.

코딩은 참가자들이 기술한 인상에서 포함된 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대인 구성(interpersonal construct)은 “참가자가 묘사한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 특질, 동기, 신념, 습관, 버릇, 또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Burleson & Waltman, 1988, p. 7). 단순히 정도를 표현하는 형용사와 부사는 추가적인 구성으로 세지 않았으며, 관용 표

3 합산 평균을 이용해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 간의 관계를 봤을 때에는 정적 상관($r=.32,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교회전방식의 요인분석으로 얻은 요인점수를 지수화하는 통계적 조치로 직교성(orthogonality)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현 역시 하나의 구성으로 보았다(Griffin, 2009). 역할 범주 설문에서 두 사람에게 대한 인상 묘사에 이용된 개별적 구성의 수의 총합을 대인 구성 분별성의 지표로 삼았다.

언론정보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대학생이 코딩을 맡았다. 코더 훈련은 버얼레슨과 월트만(Burleson & Waltman, 1988)의 여섯 절차에 따랐다. 30쌍의 인상을 이용해 급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측정된 코더 간 신뢰도는 좋아하는 친구 및 싫어하는 친구에 대한 묘사에서 각각 .98, .81이었다.

(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통제력의 15개 하부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등 총 15개의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허경호(2003)는 이 척도가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동반타당도 및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크론바하 알파로 측정된 의사소통 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87($M=3.49$, $SD=.57$)로 나타났다.

(4) 대인관계 만족도

은혁기(2000)가 기존의 검사지들을 기초로 재구성한 대인관계 만족도 검사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 및 부모와의 만족도, 교사와의 만족도, 친구와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6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이론 구조

에 맞지 않게 적재되거나 요인적재치나 공통성이 0.4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는 척도 순화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17개 문항(“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는 편이다” 등)의 합산 평균을 대인관계 만족도의 지수로 삼았다($M=3.92$, $SD=.56$). 분석에 이용된 측정 문항의 수를 하부차원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만족도 3개(Cronbach's alpha = .78), 부모와의 만족도 6개(Cronbach's alpha = .86), 교사와의 만족도 5개(Cronbach's alpha = .81), 친구와의 만족도 3개(Cronbach's alpha = .83)였다.

(5) 인구 사회학적 변인

아동의 성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통제변인으로서 측정하였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얼마만큼 하나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얼마만큼 하나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했다(어머니와의 대화 시간: $M=141$ 분, $SD=132.60$,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 $M=95$ 분, $SD=112.99$).⁴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인으로 삼기 위해 부모의 학력과 가정형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각각 5점 척도(1 = 초등학교 졸업 이하, 5 = 대학원 중퇴 및 졸업)로 측정하였으며(어머니 학력: $M=3.45$, $SD=.81$, 아버지 학력: $M=3.55$, $SD=.83$), 가정형편은 3점 척도(1 = 어려운 편이다, 3 = 잘 사는 편이다)로 측정하였다($M=2.14$, $SD=.49$).⁵ 끝으로 아동의 성적을 5점 척도(1 = 하위권, 5 = 상위권)로 보고하게 하였다($M=3.44$, $SD=1.09$).

⁴ 부모와의 대화 시간에 대한 질문에 실제 대화 시간이 아니라 부모와 대화가 가능한 시간을 적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시된 평균 대화 시간은 실제 대화 시간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⁵ 사회경제적 지위 중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서열 척도로 제시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월평균 가구 소득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묻는 대신 가정형편이 어떠한지 묻는 방법을 택했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성공 지향	성숙 지향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 소통 능력	대인 관계 만족도	성적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 학력		기정 형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성공 지향	1.00	.00*** ^{a)}	-.10	-.03	-.20***	-.05	-.05	-.07	-.03	-.01	.06
성숙 지향		1.00	.08	.41***	.29***	.35***	.15**	.09	.09	.04	.17**
대인 구성 분별성			1.00	.18**	.02	.17**	-.03	.08	.07	.05	-.06
의사소통능력				1.00	.53***	.33***	.28***	.28***	.13*	.10*	.15**
대인관계 만족도					1.00	.26***	.30***	.30***	.11*	.09	.19***
성적						1.00	.01	.01	.20***	.20***	.12*
부모와의 대화시간							1.00	.78***	.05	.06	.11*
부모 학력								1.00	.07	.04	.10
가정형편									1.00	.62***	.26***
										1.00	.21***
											1.00

a)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 간의 상관관계가 0이 나온 이유는 요인점수를 지수로 삼았기 때문이다.

* p < .05, ** p < .01, *** p < .001 (양측검증)

4.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표 2>와 같이 변인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알아보았다. 성적, 부모와의 대화 시간 및 부모의 학력, 가정형편 변인은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아동의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 간의 부분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 인구 사회학적 변인 통제 후,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이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 = -.22, p < .001$). 한편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그것이 높을수록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도 높고($r = .30, p < .001$),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21, p < .001$). 하지만 대인 구성 분별성은 성공 지향 및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

표 3. 주요 변인 간 부분상관관계 (N=389)

	성공 지향	성숙 지향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
성공 지향	1.00	-.00	-.10	-.02	-.22***
성숙 지향		1.00	.04	.30***	.21***
대인 구성 분별성			1.00	.14*	-.04
의사소통 능력				1.00	.42***
대인관계 만족도					1.00

주: 성적, 부모와의 대화 시간, 부모 학력, 가정형편을 통제함.

* $p < .05$, ** $p < .01$, *** $p < .001$ (양측검증)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

		낮음	높음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	낮음	홀사람형 98명(26.3%)	난사람형 89명(23.9%)
	높음	참사람형 95명(25.5%)	큰사람형 91명(24.4%)

그림 3. 가족 유형별 분포

케이션 양식이 대인관계 만족도의 각 하부차원(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와의 만족도, 교사와의 만족도, 친구와의 만족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와 동일하게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공 지향이 높을수록 특히 부모와의 만족도가 떨어졌으며($r = -.25, p < .001$), 교사($r = -.11, p < .05$) 및 친구($r = -.12, p < .05$)와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성숙 지향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만족도($r = .22, p < .001$), 부모($r = .15, p < .01$) 및 교사($r = .17, p < .01$)와의 만족도가 높았다.

2) 가족 유형의 구분

가족 유형은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을 각각 요인점수 평균인 0을 기준으로 이분하여 상호 교차시킴으로써 분류하였다. 가족 유형별 분포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389명 중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일부 측정 문항에 대한 무응답으로 16명의 결측이 발생하여 총 373명의 가족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그림 3>의 괄호 안에 표시된 수치는 결측 사례를 제외했을 때의 유효 퍼센트다.

표 4. 가족 유형별 기술통계치

	가족 유형							
	난사람형 (n=89)		참사람형 (n=95)		큰사람형 (n=91)		홀사람형 (n=98)	
	M	SD	M	SD	M	SD	M	SD
대인 구성 분별성	9,06	3,92	10,08	5,10	8,86	3,84	8,56	5,25
의사소통 능력	3,31	,51	3,75	,57	3,66	,51	3,24	,53
대인관계 만족도	3,66	,57	4,14	,47	3,97	,55	3,87	,55

3) 연구가설의 검증

〈연구가설 1〉,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은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된 네 가지 가족 유형 중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이 다른 세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큰사람형, 홀사람형)의 아동보다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족 유형에 따른 각 종속변인의 기술통계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 이를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연구가설 1〉,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의 기술통계치가 모두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람형 가족과 기타 가족 유형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가족 유형별 대인 구성 분별성의 차이 분석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성적을 공변인으로 설정했으며, 가족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만족도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 및 성적, 지역을 공변인으로 채택하였다.⁶ 〈표 5〉는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대인 구성 분별성에서는 가족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

대인 구성 분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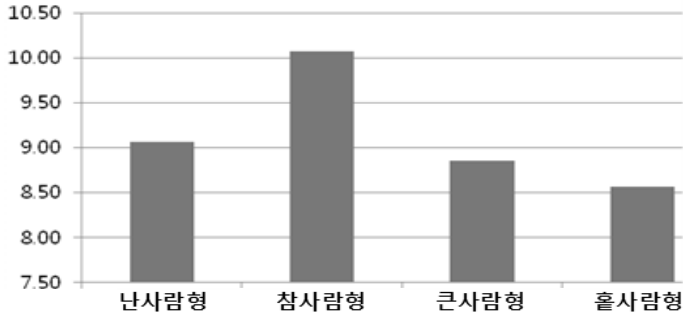


그림 4. 가족 유형별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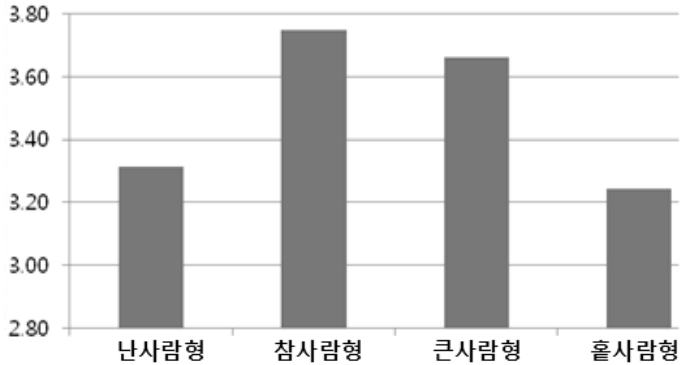


그림 5. 가족 유형별 의사소통 능력

6이 중 성적 변인은 본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측정하였으나, 성적이 높을수록 각 종속변인(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인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의 아동이 청주 지역의 아동보다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명목변수인 지역을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변환하여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공분산분석에서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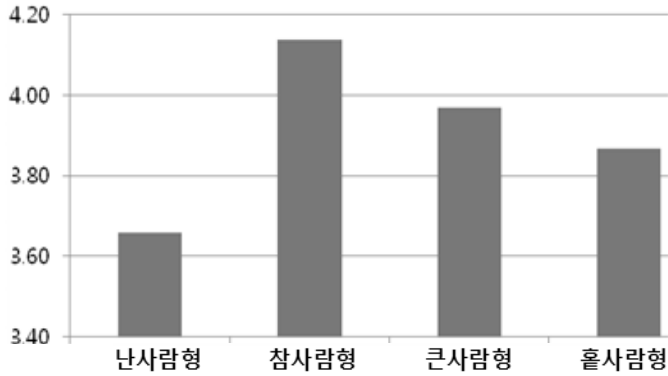


그림 6. 가족 유형별 대인관계 만족도

표 5. 분산분석표

변산원	SS	df	MS	F
대인 구성 분별성				
성별	549,55	1	549,55	28,42***
성적	195,15	1	195,15	10,09**
가족 유형	77,81	3	25,94	1,34
의사소통 능력				
부모와의 대화 시간	6,04	1	6,04	24,68***
성적	6,14	1	6,14	25,09***
지역	3,17	1	3,17	12,94***
가족 유형	5,88	3	1,96	8,00***
대인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	7,76	1	7,76	30,90***
성적	4,42	1	4,42	17,60***
지역	2,93	1	2,93	11,66**
가족 유형	5,00	3	1,67	6,64***

** $p < .01$, *** $p < .001$ (양측검증)

표 6. 참사람형과 여타 가족 유형 간의 대비검증 결과

가족 유형	Helmert 대비	종속변인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
참사람형 vs. 다른 가족 유형 (난사람형, 큰사람형, 홀사람형)	대비 추정값	.235	.199
	가설값	0	0
	차분(추정값-가설값)	.235	.199
	표준오차	.06	.06
	유의확률	.000***	.002**

** $p < .01$, *** $p < .001$ (양측검증)

견되지 않았다($F=1.34, p>.05$). 따라서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다. 반면, 가족 유형에 따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F=8.00, p<.001, \eta_p^2=.07$) 및 대인관계 만족도($F=6.64, p<.001, \eta_p^2=.0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에서 예측한 것처럼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이 다른 세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큰사람형, 홀사람형)의 아동보다 높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사람형 가족과 나머지 가족 유형을 비교하는 Helmert 대비검정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대비검정 결과,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은 나머지 세 가족 유형의 아동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은 모두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채피 등(1973)의 연구 이후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주로 사회 지향(순응 지향)과 개념 지향(대화 지향)의 틀 안에서만 논의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개념화하였다. 먼저 성공 지향은 경쟁에서의 승리와 출세를 강조하는 것을 뜻하며, 성숙 지향은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가족 유형(난사람형, 참사람형, 큰사람형, 홑사람형)이 도출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가족 유형이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인지적 자원으로서는 대인 구성 분별성, 실제 실행으로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심리적 요소로서 대인관계 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네 가지 가족 유형 중 참사람형(성공 지향 低, 성숙 지향 高) 가족의 아동이 다른 가족 유형의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대인 구성 분별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대인 구성 분별성은 가족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는 예측한 바와 같이 참사람형 가족의 아동이 나머지 가족 유형의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네 가지 가족 유형 중 참사람형이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유익한 가족 환경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주의 교육 경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아동기 자녀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힘써야 할 것은 아이가 시험에서 1등을 하게끔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분석결과와는 보여 준다.

박승관(2011)은 한국 사회 발전을 지배해 온 원리가 공동체 회귀형의 바름 성장 모형이 아니라 공동체 이탈형의 꼬임 성장 모형임을 비판한 바 있다. 개인의 성공은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 지위와 권력

을 독점하기 위한 것일 뿐, 그에 따르는 이익의 공동체 재환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공 지향과 성숙 지향의 대비는 박승관(2011)이 정리한 ‘꼬임 성장’ 모형(공동체 이탈형)과 ‘바름 성장’ 모형(공동체 회귀형)의 대비와도 통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대인관계를 연습해, 이를 가정 밖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는 학원을 다니는 등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가족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미디어를 통한 대화의 확장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통제했을 때, 참사랑형 가족의 아동이 다른 세 가족 유형의 아동보다 높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보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화 시간이 아니라 그 대화 내에서 교류되고 학습되는 삶의 가치 지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성적 변인과 관련해 재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성숙 지향이 높을수록 성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공 지향은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공부,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쓸 때 아이의 학업 성취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숙 지향과 성적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거꾸로 자녀의 높은 성적이 가족 내의 높은 성숙 지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부정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성공 지향 커뮤니케이션이 높을수록 특히 부모와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성공 지향은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고 대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되면서 심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대화의 초점

을 공부와 성적에 맞추고 경쟁에서 이기도록 장려하는 것은 결국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연구가 사회적 경쟁이 유발하는 모든 부정적 결과를 가족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조적 경쟁을 그대로 가족 안으로 가져와 자녀에게 성공만을 강조할 때, 아이 개인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이고 부모가 강조하는 학업적 성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 자료로 아동의 자기보고식 응답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응답 대상자들이 성숙 지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문항에 대해 같은 방향의 응답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직접적인 관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평가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었다면, 연구결과는 더욱 강력한 타당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대화 시간, 아동의 성적 등 여러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혼인 상태, 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와 같은 가족의 형태나 친구의 수,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양과 같은 가족 외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기존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이 연구에서 개념화한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개념 지향(대화 지향) 및 사회 지향(순응 지향)이 개방성과 통제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을 다룬다면, 성공 지향 및 성숙 지향은 가족 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양자를 함께 고려한다면 가족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동 (2007). 조선조 종법제 가족주의와 교육경쟁 성격에 관한 사회사적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0권 1호, 23~4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Online] Available: <http://stdweb2.korean.go.kr>
- 김경산·김명자·박혜인·유영주·유은희·윤종희·이미숙 (1994). 한국 가족의 교육열과 대학입시: 가족적 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161~178.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영 (2007. 1. 17). 최인호 씨 “혼란한 사회, 기본을 생각해야”. 『동아닷컴』. [Online] Available: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1170098>
- 김지영·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권 1호, 21~32.
- 김태준·이영민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연구보고 10-R17-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주 (1992). 매스커뮤니케이션 수용의 대인관계적 과정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3권, 127~148.
- 김현철·김은정·최연혁·윤인진·이선아·박천식·Quenzel, G.·Conway-Turner, K.·Matsuda, S. (2007a).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연구보고 07-R1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화·최연혁·Sherif, B.·Quenzel, G.·Aota, Y. (2007b).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연구보고 07-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용린 (2011). 『행복한 성장의 조건』. 서울: 웅진씽크빅.
- 박승관 (2011). 한국 사회와 소통의 위기: 소통의 역설과 공동체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121~169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효식·김근화 (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권 2호, 47~58.

- 은혁기 (2000).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만제 (2009). 대인 커뮤니케이션 특성 및 자아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권 3호, 99~127.
- 이준용·이상철·이귀혜·유정아·장윤재·김현석 (2007). 공공 화법과 토론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토론 효능감,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44~171.
- 장해순 (2003). 대인갈등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상호관계, 매력 간의 관계. 『언론과학연구』, 3권 2호, 302~344.
- 조윤경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 그리고 가족커뮤니케이션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210~231.
- 최민아·신우열·박민아·김주환 (2009).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199~220.
- 최석란 (2001). 『어린이의 또래관계』. 서울: 다음세대.
- 최이정 (2005).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 부모의 미디어 폭력 중재, 가정 내 폭력 경험이 TV 폭력에 대한 어린이의 도덕적 해석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19권 2호, 47~84.
- 한주리·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202~227.
- 허경호 (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380~408.
- Applegate, J. L. (1982). The impact of construct system development on communica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in persuasive contexts. *Communication Monographs*, 49(4), 277~289.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urleson, B. R., Delia, J. G., & Applegate, J. L. (1995). The socialization of person-centered communication: Parents' contributions to their children's social-cogni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In M. A. Fitzpatrick & A. L. Vanglisti (Eds.),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s* (pp. 34~76). Thousand Oaks, CA: Sage.
- Burleson, B. R. & Waltman, M. S. (1988). Cognitive complexity: Using the role category questionnaire measure. In C. H. Tardy (Ed.), *A handbook for the study of human communication: Methods and instruments for observing, measuring, and assessing communication processes* (pp. 1~35). Westport, CT: Greenwood.
- Chaffee, S., McLeod, J., & Wackman, D. (1973).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J. Dennis (Ed.), *Socialization to politics: A reader* (pp. 349~364). New York, NY: Wiley.
- Clark, R. A. & Delia, J. G. (1977). Cognitive complexity, social perspective-taking, and functional persuasive skills in second- to ninth-grade childre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2), 128~134.
- Crockett, W. H. (1965). Cognitive complexity and impression formatio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2, pp. 47~90). New York, NY: Academic Press.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Glenview, IL: Scott, Foreman & Co. 노영주 서동인 원효종 (옮김) (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응집성과 변화』. 서울: 하우.
- Gleitman, H. (1995). *Basic psychology* (4th ed.). New York, NY: Norton. 장현갑 외 (옮김) (1999).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Griffin, E. A. (2009).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7th ed.). Bost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Hale, C. L. & Delia, J. G. (1976). Cognitive complexity and social perspective-taking. *Communication Monographs*, 43(3), 195~203.
- Huang, L.-N. (1999).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Quarterly*, 47(2), 230~243.
- Isley, S. L., O'Neil, R., Clatfelter, D., & Parke, R.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547~560.
- Jablin, F. M. & Sias, P. M. (2001). Communication competence. In F. M. Jablin, & L. L. Putnam (Eds.), *The new handbook of organizational*

- communication: Advances in theory, research, and methods* (pp. 819 ~ 864). Thousand Oaks, CA: Sage.
- Koerner, A. F. & Cvancara, K. E. (2002). The influence of conformity orientation on communication patterns in family conversation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3), 133 ~ 152.
- Kohn, A. (1992).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성재상(유희김) (1995). 『경쟁을 넘어서』. 서울: 비봉.
- Lakey, S. & Canary, D. (2002). Actor goal achievement and sensitivity to partner as critical factors in understand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flict strategies. *Communication Monographs, 69*(3), 217 ~ 235.
- Lane, S. D. (201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texts*. Boston, MA: Allyn & Bacon.
- Lull, J. (198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social uses of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7*(3), 319 ~ 334.
- O'Keefe, D. J. & Sypher, H. E. (1981). Cognitive complexity measures and the relationship of cognitive complexity to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8*(1), 72 ~ 92.
- Qin, Z., Johnson, D. W., & Johnson, R. T. (1995). Cooperative versus competitive efforts and problem solv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5*(2), 129 ~ 143.
- Ritchie, L. & Fitzpatrick, M. (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rapersonal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7*(4), 523 ~ 544.
- Rubin, R. B., Martin, M. M., Bruning, S. S., & Powers, D. E. (1993).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41*(2), 210 ~ 220.
- Spitzberg, B. H. (1983). Communication competence as knowledge, skill, and impression. *Communication Education, 32*(3), 323 ~ 329.
- Stapel, D. A. & Koomen, W. (2005). Competition, cooperation, and the effects of others on 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1029 ~ 1038.
- Stone, V. A. & Chaffee, S. H. (197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source-message orient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47*(2), 239 ~ 246.
- Wiemann, J. M. (1977).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195~213.

Zigler, E. & Child, I. L. (1969). Socialization. In G. Lindzey & Aronson, E.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3, pp. 450~589). Reading, MA: Wesley.

최초 투고일: 2012.08.21

논문 수정일: 2013.01.28

게재 확정일: 2013.01.29

'What to Be' and 'How to Live'

The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Success – and Integrity – Oriented) on Children'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Jihye Son

M.A., Dep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 Gwan Park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CP) have traditionally been classified along two dimensions: socio-orientation and concept-orientation. In the present research, we present new dimensions of FCP in light of images of different families in Korea. The first dimension, success-orientation, concerns the extent to which a person's family emphasizes and values success in life. The second dimension, integrity-orientation, concerns the extent to which a person's family stresses formation of good character. Categorizing families as either high or low on these two dimensions results in four family communication types: (a) competitive (high success and low integrity), (b) virtuous (low success and high integrity), (c) all-around (high success and high integrity), (d) laissez-faire (low success and low integrity). On the basis of this typolog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our family communication types and children'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e anticipated that children from virtuous families would show the greatest degree of interpersonal construct differentiation (IC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IR), considering that these children, while being most considerate of others (due to high integrity-orientation), are least likely to see others as their rivals (due to low success-orientation). To examine which family communication type creates an optimal environment for nurtur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ies for children, we conducted a survey with sixth-grade children. As expected,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from the

virtuous families exhibited highest level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IR.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ICD between children from virtuous families and those from the other family communication typ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family communication typ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re discussed.

KEYWORDS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 success-orientation
• integrity-orientation • communication competence •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 interpersonal construct differentiation